

지역사회 역량의 구성 영역 -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 사례 -

곽민선*, 윤난희*, 장사랑*, 조병희*, 유승현*^{***†}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연구센터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A Case of a Resident Committee in a Public Residence Lease Apartment Complex in Seoul

Min-Son Kwak*, Nanhe Yoon*, Sarang Jang*, Byong Hee Cho*, Seunghyun Yoo^{***†}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 Center for Health Promo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in a public residence lease apartment complex in Seoul as a case study, and discusses their application to community health promotion. **Methods:** The research team performed a focus group interview and a brief survey with resident committee representatives to explore community context and to identify the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and their order of priority. **Results:** We identified many groups with different senses of community and various dynamics in the community. Seven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were identified. However, there are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among them. Also there are some influences with the different directions in a dimension, e.g. leadership and citizen participation. **Conclusions:** This study illustrated the identification of the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focused on the perspective and recognition of the community and community member, as an effort to understand community capacity in domestic community health promotion context.

Key words: Community, Community capacity, Asset-based approach

I. 서 론

199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역량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 접근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에 따르면 지역사회 역량은 지역의 사회문제와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기술, 의지의 총합 (Aspen Institute, 1996)', '능력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특성 (Goodman et al., 1998)', '잠재적인 자원의 발굴과 동원 과

정(Easterling, Gallagher, Drisko, & Johnson, 1998)',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능력(Bopp, GermAnn, Bopp, Littlejohns, & Smith, 2000)', '인적자원, 조직자원, 사회적 자원의 상호작용 (Chaskin, 2001)'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설명되는 지역사회 역량 개념을 정리하는 시도로 Simmons, Reynolds, & Swinburn (2011)은 기존 연구에서 지역사회 역량이 (1) 과정 또는 접근방법으로 정의되는 점, (2) 여러 영역, 특징, 능력 등의 집합적 의미로 이해되는 점, (3) 지역사회 역량 정의에 지향하는 중점을 포함하는 점을

Corresponding author: Seunghyun Yoo

Building 221 Room 318,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21동 318호 (우: 151-742)

Tel: +82-2-880-2725 Fax: +82-2-762-9105 E-mail: syoo@snu.ac.kr

* 본 연구는 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연구사업(일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일반 12-28).

▪ 투고일: 2012.10.31

▪ 수정일: 2012.12.20

▪ 게재확정일: 2012.12.26

공통점으로 꼽았다. 이들 지역사회 역량 정의들은 지역사회의 부족, 필요보다는 자산에 기반을 두고 객관적, 긍정적 측면에서 역량을 정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Liberato, Brimblecombe, Ritchie, Ferguson, & Coveney (2011)는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역량의 구성영역을 학습기회와 기술 개발, 자원 동원, 파트너십/연계/네트워킹, 리더십, 참여적 의사결정, 자산 기반 접근,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발달경로의 9개 세부영역으로 재조합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역량의 정의·개념에 대한 연구는 도시학, 간호학, 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었다(Ahn, 2007; Jung, Gil, & Cho, 2009; Kim & Gu, 2011; Lee, 2009; Shim, 2004). Ahn (2007)은 지역사회 보건간호에서 ‘지역사회 역량’이 종종 언급되나 이에 대한 이해는 부재하다 지적하고, 선행 연구 상의 종합적인 정의로 Chaskin (2001)의 지역사회 역량 개념을 제시하였다. Kim & Gu (2011) 역시 마을단위 건강증진사업의 개발 전략으로 Chaskin (2001)의 지역사회 역량 영역을 이용하였다. Chaskin (2001)의 지역사회 역량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의 개인, 조직, 네트워크가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역량이 형성되고, 이후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그 역량이 확대된다고 본다. 이 역량개념을 적용하려면 동기, 지식, 기술을 가진 인적자본이 전제되어야 하고, 개인, 조직, 네트워크가 각자 제 역할을 할 때 역량을 이야기할 수 있다. Jung et al. (2009)은 지역사회기반 조직의 수, 조직 간 연대의 분화, 파트너십 발달 정도를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해 지역사회 역량을 파악하였다. 지역사회기반조직 간의 파트너십은 보건사업기획의 주요 전략으로 이용되나, 조직들 간 파트너십이 지역사회 역량의 전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역량 전반에 대한 적절한 대리 지표로 보기 어렵다. 한편, Lee (2009)는 지리학 분야 연구에서 개인역량, 물리적 시설 역량, 지역경제역량, 지역의 민간조직 역량,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의 일부 또는 전체가 강화된 상태를 지역사회 역량(Kretzmann & McKnight, 2005)으로 보고, 이 중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요인인 참여에 관심을 두었다. Shim (2004)은 탄광지역 개발계획정책 집행에 따른 마을의 변화과정에서 겪는 관계구조적 접근의 지역사회 역량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에서는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내 자원에 접근하고,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의도적 과정으로 역량을 정의하므로 지역사회 자산에 기반을 두기보다 지역사회의 부족을 전제로 한다. 그

리고 이들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행정구역별 지역역량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 직업군 공동체, 소비자 단체, 동호회, 학부모회, 환우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정체성 공동체와 관심사 공동체가 혼재되어 있다(Yoo, 2009). 게다가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정, 학교, 직장 등의 생활터전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강한 생활터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Kim & Choi, 2010). 그러므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지역사회 중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실제 지역사회가 가지는 다면적 특성과 그 특성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사회 역량(Chaskin, 2001; Smith, Littlejohns, & Roy, 2003)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기존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파악된 지역사회의 보건 문제, 지역사회의 부족한 자원, 능력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사회 외부의 자원 및 전문가 의존도가 높다. 또한, 지역사회보건사업 담당자는 지역사회의 상황보다는 특정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사례를 모범답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외부 전문가 의존도가 크고 지역사회는 본인의 요구보다 외부의 필요에 의한 보건사업에 동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전제에서 자유롭고, 지역사회의 자산에 기반을 둔 역량을 파악하면서 기존의 지역사회 역량 연구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역량의 영역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A구에 위치한 B 영구 임대아파트(이하, B 아파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 적용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Cho, Yoo, Kwak, Yoon, & Jang, 2012). 이 과제는 2012년 서울시 인구의 절반(44.1%)이 생활하는 서울시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주거지(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2)인 아파트와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참여형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B 아파

트는 이 지역 재개발 지역 세입자가 전체 임차인의 47.3%(Cho et al., 2012)로 오랜 시간 임차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또한, 해당 과제에서는 B 아파트가 A구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주요 대상의 하나로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협력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B 아파트와 임차인 대표회(이하 대표회)에 대한 이해 및 진단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표회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 영역의 대표적인 연구인 Goodman et al. (1998)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Goodman et al. (1998)은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들의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역량의 구성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이 결과는 이후 많은 지역사회 역량 연구의 출발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다(Laverack, 2001; Smith et al., 2003; Simmons et al., 2011).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역량은 10개 영역으로 참여, 리더십, 기술, 자원,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의 영향력, 지역사회의 가치로 구성된다. 한편, Liberato et al. (2011)은 Goodman et al. (1998)의 연구 이후에 발표된 지역사회 역량의 정의와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지역사회 역량의 구성 영역을 재조합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회 역량은 학습기회와 기술 개발, 자원 동원, 파트너십/연계/네트워킹, 리더십, 참여적 의사결정, 자산 기반 접근,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발달경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Goodman et al. (1998)의 연구가 지역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역사, 가치, 영향력과 같은 내부의 메커니즘과 지속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이해하는 틀로 삼았다<Table 1>.

본 연구는 Goodman et al. (1998)의 지역사회 역량 구성 영역이 국내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1과 이러한 구성 영역들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과정 2로 구성되었다. 과정 1에서 연구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과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한 내용과 맥락에 근거하여 역량 영역의 개념과 사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Goodman et al. (1998)의 각 역량 영역별 하부 영역들과 구성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하고, 지역사회 역량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에 이어진 과정 2에서 참여자들은 Goodman et al. (1998)의 지역사회 역량을 구성하는 10개의 영역에 대해

우선순위 매기기를 하였다. 과정 1에서 도출된 영역들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당 영역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순위에 따라 나열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우선시 하는 역량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Table 1> Comparative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Goodman et al. (1998)	Liberato et al. (2011)
Citizen participation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Leadership	Leadership
Skills	Learning opportunities and skills development
	Communication
Resources	Resource mobilization
	Asset-based approach
Sense of community	Sense of community
Social/inter-organizational networks	Partnership/linkages/networking
Community power	
Critical reflection	
Understanding of community history	
Community value	
	Development pathway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인 B 아파트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중 하나로 2001년부터 재개발 지역 세입자, 청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등 임차인 1,843세대(4,034명)가 11-15층 높이의 복도식 아파트 15평형, 5개 동에 영구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Cho et al., 2012). 서울시의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 12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건설되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2012년 현재 서울시 7개구에 4만 5천 8백여 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Ki, 2012).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는 B 아파트의 5개 동 중에서 동대표가 없는 한 개 동을 제외한 4개 동 동대표와 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 4명의 임원을 포함한 총 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남성 3명, 여성 5명이었고, 평균 연령이 64.5세였다. 이들은 B 아파트 거주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었으며, 대표회에서 2년제 임기를 2회 이상 맡고 있었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지역사회 역량 구성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카드 작성을 통해 실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앞서 B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 대표회에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대표회 임원들과의 모임 일정을 예약하였다. 대표회와의 첫 모임에서 연구진은 본 연구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2년 6월 28일 대표회 회의실에서 연구진 중 1명이 진행을 담당하고 추가로 3명이 진행을 보조하며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우선순위카드를 제시하고 취합하는 과정

으로 1시간 여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인터뷰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진행 중 참여자가 응답하기 어려운 내용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 인터뷰 중단 요청 권리를 상세히 안내하였고, 참여자들로부터 인터뷰 내용 녹취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 과정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윤리심의를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12-2012-05-15).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질문은 대표회 활동에 대한 경험, 과정, 성과 등을 포함하여 중심질문과 보조질문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연구진은 참여자들이 가능한 한 지역사회 역량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질문 및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사회 역량의 구성 영역이나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Table 2> Focus group interview questions

-
- Could you explain the vision or goal of your resident committee?
 - Please describe the prominent issues for the resident committee to address.
 - Please explain the most impressive things that the resident committee has done in the past.
 - Please explain how each of you became involved in the resident committee.
 - Please tell us your experience as a member of the resident committee.
 - What are the challenges that you experienced in the resident committee activities?
 - What difficulties did you have as a group?
 - How did you overcome these challenges?
 - What do you think the strength of your resident committee?
-

한편, 연구진은 Goodman et al. (1998)의 지역사회 역량 10개 영역과 설명을 포함한 10장짜리 카드 세트를 준비하였다. 제시한 10장의 카드 앞면에는 역량의 영역을 각각 표시하고, 뒷면에는 각 역량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후반에 참여자들은 각각 카드 1세트를 가지고, 참여자들 간의 논의를 배제한 상태로 각자 지역사회 역량의 구성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에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영역을 1로 하고, 가장 낮은 영역을 10으로 표기하도록 안내하였다.

4. 자료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종료 후,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고 연구인 4인간 대조검토를 통해 녹음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은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질적 연구 분석의 경험이 있는 연구진 2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은 Van Manen (1990)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따랐다. 2인의 분석자는 각각 녹음기록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코드(code)와 코드들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한 범주(category)를 도출하였고, 이를 주제(theme)로 묶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명의 분석자가 각각 도출해 낸 전체 코드를 분모로 하고 코드가 일치하거나 또는 동의된 비율을 계산하여(Saldana, 2009) 확보한 최종 분석의 연구자 간 분석 내용에 대한 일치도는 90%였다.

초기 분석에서는 대표회가 인식하는 보유 역량과 필요 역량을 대비하며 하부 범주들을 묶어 내었다. 대표회가 언급한 지역사회 역량 중에서 성격이 유사하거나 영역들 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고, 최종적

으로 역량 영역 및 영역들 간의 관계에 따라 대비되는 상태와 과정맥락에 대한 총 4개의 주제를 도출했다. 지역사회 역량의 구성 영역 우선순위는 각 참여자들이 카드에 명시된 지역사회 역량 영역과 설명내용을 읽고 기입한 우선순위의 합을 한 후, 합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대표회 역량은 B 아파트의 구성원인 대표회-임차인-새터민-관리소장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참여’, ‘리더십’, ‘지역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영향력’, ‘자원’, ‘기술’의 7개 역량 영역이 파악되었다. 이들 역량 영역들은 서로 간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대표회의 참여와 임차인의 비참여 상황’, ‘대표회의 리더십과 관리소장의 리더십 관계’, ‘지역사회 맥락과 그에 대한 공동체 의식 및 영향력’, ‘대표회-임차인 간 신뢰 쌓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과 기술’이라는 4개의 주제 안에서 설명될 수 있었다.

1. 대표회의 경험과 역량 영역

1) 대표회 참여 vs. 임차인 비참여

B 아파트 대표회의 대표들은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 독거노인,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고, 병들어 아프거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해도 발견할 사람조차 없는 노인독거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기에 자신들이 대표회에 참여하여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B 아파트단지 안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하는 의지와 이타심, 대표로서의 자부심을 대표회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주요 동기로 꼽았다. 다시 말해 대표들은 자신을 B 아파트의 보호자, 또는 봉사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대부분 2년제의 대표회 활동을 2회 이상 맡고 있었다.

“노약자들, 장애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단지 안의 인도개] 너무 좁다보니까 그런게 참 안타까워요 ... 위탁 넘어 가면 우리 아파트는 특히

노인들 이런 분들 진짜 걱정이예요 ... 그런 건 누가 힘을 써주거나 대표들이 나서서 해야 돼요 ... 대표들이 좀 하려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같이 일을 하면 효과가 빠르죠” (남성, 60세)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B 아파트 대표회 대표들은] 그 사람들 못지않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봉사활동을 하러 나오는 자입니다.” (남성, 72세)

그러나 대표들이 봉사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에 반해 임차인들은 대표회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참여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대표회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온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대표들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임차인들이 “대표회 임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니 문을 안 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표들은 자신이 봉사한 시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했고, 금전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대표회 활동을 한다는 임차인들의 오해 때문에 참여 중단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대표회가 관리하면서 생긴 임차인들의 오해는 3년이 걸린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 대표들 중 일부는 현 대표회와 등지게 되었고, 현 대표회와 갈등 관계에 있는 동에서는 동대표 지원자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

지역사회 역량으로서의 참여는 참여 기반이 널리 안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관심을 집합적인 행동으로 묶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상쇄하는 편익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특징이다(Goodman et al., 1998). 그런데 B 아파트 대표회는 임차인들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이 참여의 편익인 반면, 대표회 활동에 대한 임차인의 낮은 인식과 오해가 참여를 위협하는 비용,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대표회의 리더십 vs. 관리소장의 리더십

대표들과 관리소장은 관리소장 임기 초반에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관계였으나 이제 대표들은 관리소장을 대표회의 내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관리소장은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소속 공사에 시말서 작성을 불사하기도 했고, 임차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소속 공사, 보건소, 서울시 등의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회와 관리소장 간의 마찰이 줄어들었고, 관리소장을 대표회 내부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관리소장을 대표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로 인식하며 협력하게 되었다. 대표들은 이러한 관리소장의 리더십을 대표회가 가진 리더십의 큰 특징으로 꼽았다. B 아파트의 공식적인 리더십은 대표회에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관리소장이 대표회를 이끌어 가고 협력하는 관계였다. 즉, B 아파트 대표회 활동을 이끌고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리더십이었다.

“[2년 주기 임차인 자격심사에서 떨어져 B 아파트를 떠나게 된] 사람들이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시말서 써 가면서도 그 분들 편의를 봐 줘 가지고...” (남성, 60세)

“우리 소장이 단지를 위해서 참 열심히 자기도 봉사하려고” (남성, 72세)

반면 대표회 자체는 아직 뚜렷한 활동목표나 방향제시가 없는 상태였다. 이는 대표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이전에도 대표회 활동에 대해 특정 목표를 정하여 명시한 적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관리소장의 영향력이 두드러져 보였다. 근래에 대표들 중 일부가 주민리더교육 등 외부의 교육기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공유와 관리능력 함양의 기회를 안내하고 연계한 것도 관리소장이었다.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현 대표회 활동의 목표를] 정확히 찾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현 대표회의 운영목표는 없는 상태이내] 좋은 방도를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여기저기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해요” (여성, 56세)

3) 지역사회 맥락과 그에 대한 공동체의식 및 영향력

2001년 입주를 시작한 B 아파트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9.6년으로 임차인들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왔다. 임차인들의 절반은 임대아파트로 이주하기 이전

에도 이 지역에 살면서 서로의 성장과정과 생활을 지켜봐 왔다. 그러다 보니 □□ 엄마, □□ 할머니, □□ 할아버지로서보다 이□□, 김□□로 서로를 부르고 인식할 정도로 단지 안의 이웃들 사이에 오랜 친밀함의 기반이 있는 곳이다(Cho et al., 2012). 그러나 B 아파트는 입주 초반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 편견, 남비현상¹⁾을 경험했다. 단지 내적으로도 일부 임차인들의 언어폭력과 쓰레기 투척 문제가 계속되어왔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곧바로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로 인해 임차인들 간 갈등이 있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대표회 활동에 대한 오해와 수익금을 둘러싼 법정소송문제도 B 아파트가 겪어온 굴곡의 하나로 현재 대표회와 임차인 간의 신뢰회복 과정 중에 있으나, 다른 갈등에 대해서는 문제에 익숙해진 채로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장애자분들이... 집이 좁다보니까... 설 공간이 별로 없어요... 노인정엔 안 가시려고 그래요 [정신 장애자들이] 길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많았어요 그 분[임차인, 방문인]들 지나가는데 다리가 굽대 휘었다, OO[신체 특정 부위]가 크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남성, 60세)

“옛날에는 우리가 [임차인의 언어폭력, 쓰레기 투척 등에 대해] 주민 투서를 하면 요양원이나 그런 데를 넣는데... 지금은...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못 간대요... 나는 참 그게 잘못 났다고 봐... 여기 다른 주민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거는 참 잘못 된 것 같아.” (여성, 56세)

“제일 힘이 들었던 거는 수익금에 대한 소송이 되어 임차인 간 3년 간 법정 싸움을 했어요 그 수익금 돈을 안 넘겨주고 지금까지 서류도 하나 못 받았지.” (남성, 60세)

“내일 우리가 기념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차인이 오늘 저녁에 새벽에 페인트를 거기다 들어부은 거야 빨간 페인트를.” (남성, 72세)

1) NY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은 흔히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시설, 인프라, 서비스 입지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일컫는다(Shim, 2008).

그러던 중 근래에 B 아파트 단지로 새터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2012년 6월 현재 전체 임차인 1800여 세대 중 새터민 가구는 100세대(5.6%)이다. 대표들은 새터민 입주 비용의 증가, 정부의 새터민 임차인에 대한 자격 관리 허술, 정부지원의 쏠림 현상에 불만이 많았다. 또한 임차인들은 정기적인 임차인 자격심사에서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주민등록상 등재된 비동거 자녀가 있음이 확인되어 임차인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들을 새터민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들은 새터민에 대한 임차인들의 상대적인 반감이 큰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임차인과 새터민 간 갈등이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대표들의 새터민에 대한 언급에서 새터민을 ‘B 아파트 임차인’이라는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터민] 형제가 와도 한 집 주면 둘이 형제가 같이 사는데 한 형제가 왔는데도 형 하나 따로 주고, 동생 하나 따로 주고 그니까 잘못 났다고.” (여성, 56세)

“(위의 발언에 이어서) 이러다 보니까 진짜 여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쫓겨나야 하고...” (남성, 60세)

즉, B 아파트는 단지 안의 임차인들이 상호연결성과 이웃 간 익숙함을 가진 곳으로 오랜 기간 B 아파트단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변화를 알고 있고, 주변 지역사회와의 관계 차원에서 자신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역량 중 ‘지역사회에 역사의 이해’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B 아파트의 상황 맥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넘어 B 아파트단지의 요구 충족, 임차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텃세, 갈등을 변화시키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능력 측면에서 B 대표회의 ‘영향력’은 뚜렷하지 못했다.

4) 대표회-임차인 간 신뢰 쌓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과 기술

현재 대표회와 임차인들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는 과정에 있다. 과거 임차인들은 대표회가 아파트 주말장, 개시판 운영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오해하였으나, 대표들과 임차인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서 보상 없는 대표회 활동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봉사하는 거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틀려져요 우리를 알고 그러면... 하소연도 하시기도 해요... 길거리 가다가도 만나면 아는 척도 하고...” (여성, 56세)

대표회의 물리적 자원 동원은 우선 유휴공간이 많지 않은 단지 내에서 대표회 회의실을 확보하여 안전들을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아파트단지 내 운동시설에 트레이너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요구를 해결하려 했으나 비용문제로 불발된 것에 대해 대표들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A구에서는 제일 큰 임대아파트단지가 대표 회의실도 없었더라고... 여기 원래 헬스장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대표하면서 소장님하고... 대표 사무실을... 이렇게... 꾸민 거예요” (남성, 60세)

“저희[대표]들이 트레이너 한번 구해볼라고 했었는데 무료로 와서 해주시는 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긴 많은 돈을 쫓아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여성, 56세)

그 밖의 자원 동원활동은 아파트단지 앞 마을버스 운행 시간 조정, 임차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에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단지 내 장애인 쉼터 확보를 위한 비가림막 시설 설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대표들은 주민동의서를 받아 주민자치센터 주민단체모임, 소속 공사, 서울시 등에 건의해 왔다.

“동 대표들이다 보니 동사무소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건의를 해요...” (여성, 56세)

그런데 지역사회 역량으로서의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며, 지역사회 안팎의 자원에 대한 접근과 공유, 신뢰와 협동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자본과 능력, 지역사회 안팎의 의사소통을 위한 경로를 특성으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 역량 측면에서 기술은 갈등 해결, 자료 수집 및 분석, 문제 해결과 기획, 자원 동원, 정책 등의 건설적인 조정 능력, 지역사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영향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지역사회를 위한 최적의 자원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Goodman et al., 1998). B 아파트 대표회는 임차인들과의 오랜 오해 속에서도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고, 물적 자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주도하는 것 외에 대표회가 지역사회 외부의 자원을 파악하고 확보하는 시도로는 담당·관련기관에 건의·요청하기가 주를 이루었다.

2. 대표회가 생각하는 역량 영역의 우선순위

대표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기술’, ‘자원’, ‘참여’ 영역에 대한 필요의 우선순위를 높게 선정했다 <Table 3>. B 아파트 대표회 임원들은 단지 내 임차인들 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관리해오면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직접 관련된 역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B 아파트단지에 새로운 임차인 집단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임차인들 간의 이질성 문제나 배려와 존중의 문제는 공동체의식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입주 초기부터 임차인들 간 이질성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여러 가지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회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표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리더십 영역의 우선순위는 낮았는데, 관리소장의 리더십과 관리소장-대표회의 협력을 대표회 리더십의 강점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들은 대표회의 리더십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낮게 기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사회 역량 영역 중 네트워크, 지역사회 가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도 낮았다. 연구진은 인터뷰 후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대표회가 입주 초반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B 아파트와 관련 있었던 여러 지역사회기반조직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이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나 우선순위가 낮게 인식된 것과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IV. 논 의

지역사회 역량을 구성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가운데, 개인의 기술,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도구적·정서적 관계의 네트워크, 리더십,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단으로서의 행동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등의 일부 영역에 대해 공통된 합의가 있는 편이다(Chaskin, 2001).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 역량은 달리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 역량을 이해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이다. 현대 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구, 문화, 사회적 다양화와 함께 여러 주제와 특성에 따른 정체성 공동체들이 혼재하며 다양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다(Yoo, 2009). 본 연구에서 B 아파트에 대한 외부의 인식은 넘버원상의 대상인 임대 아파트였다. 반면, B 아파트 내부에서는 임차인의 절반이 재개발지역 세입자로 오랫동안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임차인 구성이 재개발 지역 세입자, 청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갈등도 발생하여 임차인 간에도 서로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이렇듯 B 아파트의 사례는 하나의 지역사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있고, 이들 간의 다양한 역학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사회보건사업에서 지역사회를 단순히 행정구역별 또는 주거지를 공유하는 유사한 집단으로 가정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갖는 다양한 특성과 변화를 담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 역량의 개념, 구성영역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가운데, 지역사회 역량 개념은 실무적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다. 건강도시사업에서는 건강도시사업 담당자 개인의 역량,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의 역량, 주민·기관·정치적 의지와 같은 환경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역량을 측정하였다(Kim & Koh, 2009).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담당자들의 실무 지침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에서도 지역사회 의료인력, 병의원과 같은 의료자원 현황과 네트워크, 협력현황과 같은 지역보건기관 활동을 지역보건체계의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이때의 역량은 보건사업을 담당하

<Table 3> The order of priority for 'B' resident committee

	A	B	C	D	E	F	G	H	Sum	Priority
Citizen participation	1	1	1	4	5	7	10	10	39	3
Leadership	7	9	5	5	4	8	1	9	48	6
Skills	2	4	2	1	2	2	8	1	22	1
Resources	10	2	7	2	3	1	7	2	34	2
Sense of community	3	6	9	9	1	3	3	5	39	3
Community power	9	5	3	7	8	6	4	4	46	5
Critical reflection	4	8	8	6	9	5	2	8	50	7
Social/inter-organizational networks	5	10	6	3	6	10	5	7	52	8
Understanding of community history	6	3	4	8	10	9	9	3	52	8
Community value	8	7	10	10	7	4	6	6	58	10

는 조직, 정부 등의 사업 제공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원 중심의 시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역량의 영역 일부에 해당하지만, 사업의 대상이자 또 하나의 주체인 지역사회의 관점은 크게 반영하지 못한다. 조직 내에서의 위치가 리더인지 아닌지에 따라 동일 역량 영역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Lempa, Goodman, Rice, & Becker, 2008), 이는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역량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역량 파악에 직접 개입이 적었던 지역사회 구성원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지역사회가 가진 특성을 반영한 관점에서 파악한 역량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는 지역 지역사회보건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역량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 B 아파트 대표회가 언급한 역량 영역은 리더십, 참여, 자원, 기술, 지역사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 공동체 의식, 영향력의 7개 영역이고, 지역사회의 가치, 네트워크, 비판적 성찰 영역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의 발달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파악된 7개 역량 영역은 과정 상 각자 다른 단계나 상황에 있었다. 예를 들어 대표회를 이끌어 오던 관리소장의 리더십은 현재 대표회의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반면 자원은 지역사회 내부에서 발굴·동원되기보다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수준이다. 한편, 참여와 리더십은 동일 역량의 영역 안에서 대상자 차원에 따라 역량에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고,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다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영향력과 같은 일부 역량 영역은 지역사회의 구성원 및 환경의 변화, 이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영역의 성격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확인된 역량 영역들의 합 또는 평균값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설명하는 것은 해당 지역사회가 가진 역량과 역량 영역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의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역량의 중요한 영역으로 참여와 리더십을 언급한다(Goodman et al., 1998; Laverack, 2001; Chaskin, 2001; Lempa et al., 2008).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있어야 역량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는 역량의 기본 전제 영역으로 생각된다. 구성원의 참여는 지역사회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향후 외부와 협력하기 위한 핵심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리더십은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리더십은 지역사회 다양한 네트워크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심을 집합적 행동으로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역량의 주요 영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B 아파트 대표회에서는 관리소장이 자신의 업무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임차인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고, 주민대표 수준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외부의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였다. 더욱이 관리소장은 대표들에게 외부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표회의 자체 역량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성공적인 리더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구성원들이 외부의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외부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Prestby & Wandersman, 1985) B 아파트 관리소장은 대표회의 리더십의 주요 사례로 판단된다. 그런데 B 아파트주민 대표회의 대표들은 모두 지속적으로 대표회 활동을 하면서 봉사자로서 열의를 가지고 관리소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협력할 의사가 충분하였으나, 시설설치 같은 가시적인 결과물 위주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한편 임차인 간 갈등 조정 등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상태였다. 더불어 일반 임차인들은 대표들의 이타심, 자부심에 상반되는 낮은 참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B 아파트의 경우 대표회 대표들의 한정적인 리더십이 기술과 자원 같은 다른 영역의 역량 수준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현재 수준에서 대표회 활동을 유지 및 강화하고, 동대표가 없는 동의 대표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의 대표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현재의 대표회 역량은 초기 단계이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의 리더십과 대표회 일부 대표들의 자발적인 외부 교육 참여는 향후 대표회 자체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대표회 역량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내외의 지역사회 역량 연구는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로도 이어지는데(Chaskin, 2001; MacLellan-Wright et al., 2007; Kim & Koh, 2009), 이는 지역사회 역량이 지역사회 건강의 대리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MacLellan-Wright et al., 2007; Smith et al., 2003; Smith,

Littlejohns, & Thompson, 2001). 지역사회 보전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간에 지역사회 역량의 구성 영역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이뤄지고, 본 연구에서 시도한 것과 같은 사례연구들이 축적되면 지역사회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 가능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역량의 영역 안에서도 정도와 방향의 차이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치화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사회 역량의 도구개발은 측정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전사업 담당자와 연구자들이 도구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의 강점과 자산을 파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보전사업과 연구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시작점을 찾을 수 있고, 그 동안 사업과 연구의 대상자였던 지역사회를 참여자이자 파트너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보전사업과 연구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아파트단지의 대표회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제시된 결과의 해석이나 일반화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가진 강점과 자산의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역량의 역량을 파악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과 조직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지역사회 역량에는 참여 이외에도 다른 여러 영역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역량 영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향후 지역사회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의 자산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인식하는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외의 지역사회 역량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역량의 영역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의 지역사회 안에서도 소속감이 서로 다른 집단들이 공존하고 그들 간 역학관계가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확인된 역량의 영역들은 역량의 발달 단계가 각기 상이하고, 하나의 영역 안에서도 방향이 각기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량 영역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보전사업담당자와 연구자들의 이해와 합의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비록 본 연구가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지역사회보전사업과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인식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실정을 반영한 지역사회 역량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역량 도구 개발에 있어서도 단초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The Aspen Institute. (1996). *Measuring community capacity building: a workbook-in-progress for rural communities*.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 Ahn, Y. H. (2007). Community capacity building and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1(1), 102-109.
- Bopp, M., Germann, K., Bopp, J., Littlejohns, L. B., & Smith, N. (2000). *Assessing community capacity for change*. Alberta, Canada: David Thompson Health Region and Four Worlds Centre for Development Learning.
- Chaskin, R. J. (2001).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 definitional framework and case studies from a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Urban Affairs Review*, 36, 291-323.
- Cho, B. H., Yoo, S., Kwak, M. S., Yoon, N., & Jang S. (2012). *A study on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application for apartment housing dwellers*. Seoul,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 Easterling, D., Gallagher, K., Drisko, J., & Johnson, T. (1998). *Promoting health by building community capacity: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grant makers*. Denver, CO: The Colorado Trust.
- Goodman, R. M., Speers, M. A., McLeroy, K., Fawcett, S., Kegler, M., Parker, E., . . . Wallerstein, N. (1998). Identifying and defining the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to provide a basis for measurement.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5(3), 258-278.
- Jung, M., Gil, J., & Cho, B. H. (2009). The measurement of community capacity using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network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plans.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3), 35-48.
- Ki, H. J. (2012). *Public residence lease apartment complex and maetul community*.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swf1004?Redirect=Log&logNo=130149157796>
- Kim, H. S. & Gu, M. O. (2011). Effects of community health promotion project for garlic cultivating farmers based on self-efficacy theory and community capacity building framework.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1), 80-91.
- Kim, J. M., & Koh, K. W. (2009). Assessment of individual,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capacity for healthy citi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2), 119-133.
- Kim, J., & Choi, M. (2010).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ocial networks and drinking behavior by gender differences in residents of an apartment complex in Seoul.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1(1), 105-115.
- Kretzmann, J. P., & McKnight, J. L. (2005). *Discovering community power: A guide to mobilizing local assets and your organization's capacity*. Evanston, IL: ABCD Institute.
- Laverack, G. (2001). An ident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organizational aspects of community empower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6(2), 134-145.
- Lee, Y. A. (2009). Exploring key facts of residents' participation for local capacity build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2), 261-272.
- Lempa, M., Goodman, R. M., Rice, J. R., & Becker, A. B. (2008). Development of scales measuring the capacity of community-based initiatives. *Health Education & Behavior*, 35(3), 298-315
- Liberato, S. C., Brimblecombe, J., Ritchie, J., Ferguson, M., & Coveney, J. (2011). Measuring capacity building in communit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BMC Public Health*, 11, 850. doi: 10.1186/1471-2458-11-850
- MacLellan-Wright, M. F., Anderson, D., Barber, S. Smith, N., Cantin, B., Felix, R., & Raine, K. (2007). The development of measures of community capacity for community-based funding programs in Canada.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2(4), 299-306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The 5th Community Health Plan guideline*. Seoul, Korea: Author.
- Prestby, J. & Wandersman, A. (1985). An empirical exploration of a framework of organizational viability.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1(3):287-305.
- Saldana, J.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UK: SAGE.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2). Seoul statistical yearbook. Retrieved October 11, 2012 from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act=VIEW&boardId=14207
- Shim, J. M. (2004). *A study on the community empowerment through village action planning: a case of local regeneration in Chulahm*.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Shim, J. (2008). Understanding NIMBY Conflicts.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22(4), 73-97.
- Simmons, A., Reynolds, R. C., & Swinburn, B. (2011). Defining community capacity building: is it possible? *Preventive Medicine*, 52(3-4), 193-199.
- Smith, N., Littlejohns, L. B., & Roy, D. (2003). *Measuring community capacity: state of the field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Coronation, Canada: David Thompson Health Region.
- Smith, N., Littlejohns, L. B., & Thompson, D. (2001). Shaking out the cowbys: insights into community capacity and its relation to health outcome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26, 30-41.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NY: SUNY press.
- Yoo, S. (2009). Using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CBPR) for health promo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1), 141-158.